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16. 9. 29.(목) 조간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혁신국	장준경 국장(3145-7580), 김신 팀장(3145-7590)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배포 2016. 9. 27.(화)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⑩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
- 이에 따라 열 번째 금융꿀팁으로,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⑩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2015년 5월경,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하였으나 낮은 금리 때문에 고민하던 중, ELS에 투자하면 예금보다 높은 연 7~8%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금융회사를 방문하였음 HSCEI 등 3개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하고 각 주가지수가 가입 당시 수준보다 50%를 초과하여 하락하면 낙인(knock-in)이 발생하고 이후 3개의 주가지수가 가입당시 수준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ELS상품을 권유받고, “설마 HSCEI 등 3개 주가지수가 가입당시 수준보다 50%를 초과하여 하락하겠는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유자금을 ELS 상품에 투자하였음 그러던 중 2016년 2월경 A씨는 HSCEI 지수가 가입당시 지수수준보다 50%를 초과하여 하락함에 따라 낙인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금손실이 현실화 될까봐 걱정하고 있음 ● (사례2)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다 50달러 선으로 하락한 2015년 7월, 개인투자자 B씨는 원유가격이 최고점 대비 50%가량 하락한 상황이므로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원유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원유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6개월짜리 DLS에 투자하였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16년 1월 원유가격이 27달러 선까지 하락하여 약 40%의 원금손실을 입고 DLS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
꿀팁	<p>☞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p> <p>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p> <p>ELS·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ELT·ELF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수준이 현재 가격수준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p>②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p> <p>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 증권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p>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 및 ELF 역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신탁과 펀드에 편입되는 ELS를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판매회사의 신용과는 별개로 편입된 ELS발행 증권사의 신용 등급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손익발생조건을 확실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수준, 과거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세, 향후 가격 전망 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외국 주가지수나 가격수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초자산을 이용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익숙한 국내 주가지수가 아닌 외국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경우 해당 지수 변동에 다양한 변수(해당국가의 경제·정치상황 등)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시) HSCEI는 금융업 비중이 약 68%('16.7월말 기준)에 달하여 중국 금융업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HSCEI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EuroStoxx50의 경우 유로존 7개 국가 50개 기업주식으로 구성('16.6월말 기준)되어 있어 유로존의 경제상황 등이 악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④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중 하나라도 손실발생 조건에 해당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아지고 이는 수익으로 상환되는 조건의 달성확률이 낮아져 손실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상품의 제시수익률이 1개의 기초자산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지만, 손실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한편, 높은 제시수익률은 곧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시수익률에 따르는 높은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제시수익률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조건의 충족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

파생결합증권은 이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규모가 커지는 꼬리위험(Tail Risk)이 있는 상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결과* 2003~2015년 손실상환된 ELS의 평균 실현 손실률은 △37.28%로 나타났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리뷰 2016년 봄호

⑥ 중도환매(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파생결합증권 투자기간 중 중도에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에 산정되는 중도상환가격(해지포지션의 청산 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가격의 일정비율로 정해짐)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중도상환 절차와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⑦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대부분의 파생결합증권이 일정기간(예시 : 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조기상환은 해당 시점에 발행 당시에 미리 정해진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을 예상하고 단기 필요자금을 투자하기 보다는 만기를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설정하고 만기까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지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⑧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 한정

파생결합증권은 개방형 펀드, 주식과 달리 만기가 정해진 상품으로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발생조건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을 보지 않고 상환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 감수가 불가피합니다.

⑨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ELT/ELF도 예금이 아님

은행·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ELT(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 및 ELF(주가연계펀드) 등도 신탁과 펀드에 ELS를 편입하는 상품으로 예금이 아니며 사실상 ELS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을 갖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예금으로 알고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⑩ 여유자금으로 자기책임하에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할 필요

파생결합증권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가격회복기간도 한정되어 있어 예금 등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노후자금, 치료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여유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직원의 권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청약서) 등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하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안내서류 등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분류

주식종목 또는 주가지수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ELS, ELB)과 주식외 기초자산이 있는 상품(DLS, DLB)으로 구분

ELS와 DLS는 파생결합증권, ELB와 DLB는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이 자본시장법상 정확한 명칭이나, 편의상 두 종류 모두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

참고로, ELT는 신탁계정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ELF는 펀드에서 ELS를 편입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임

- '16.6월말 현재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4.5조원('16.8월말 현재 101.5조원)으로 '15년말(98.8조원) 대비 5.7조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 추세
- ELS(ELB포함)는 72.1조원(69.0%), DLS(DLB포함) 32.4조원(31.0%)을 차지
- 원금 비보장형상품(ELS·DLS)는 71.6조원 (전체 발행규모의 68.5%)
-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S 규모는 63.1조원(전체 발행규모의 60.4%)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추이〉



구 분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6말
파생결합증권	38.8	51.6	63.2	84.1	98.8	104.5
ELS · ELB	30.4	37.3	39.9	56.8	67.3	72.1
DLS · DLB	8.4	14.3	23.3	27.3	31.5	32.4
원금非보장형 (ELS · DLS)	26.6	37.8	47.6	56.3	65.9	71.6
파생결합사채 (ELB · DLB)	12.3	13.8	15.6	27.9	32.9	32.9
지수형	21.3	26.3	31.8	52.5	58.6	63.1
종목형	8.1	9.6	7.3	3.4	6.2	6.6
혼합형 (DLS+DLB포함)	9.5	15.7	24.1	28.2	34.0	34.8

- (사례1) 투자자 갑은 '13.1월경 아래의 종목형 ELS 상품에 5,000만원을 투자하였음

상품구조

- 기초자산 : 2개 주식종목(A종목, B종목)
- 제시 수익률 : 연 9.6%
- 조기상환조건 : 매 6개월(95-90-90-85-85-80 %, 최초 기준가격 대비)
- 낙인배리어 : 50% (최초 기준가격 대비)
- 발행일 : '13.1월
- 만기 : 3년

- '14.10월 A주식의 가격(23,600원)이 최초기준가격(48,000원)의 49.1%에 해당되어 낙인배리어에 도달하였으며,
- '16.1월 만기시 A주식의 최초기준가격 대비 만기가격(27,950원)의 하락률 ($\triangle 41.8\% = (48,000 - 27,950)/48,000$)에 따라 2,090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음

- (사례2) 투자자 을은 '15.7월경 아래의 원유 DLS 상품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음

상품구조

- 기초자산 : 브렌트유, WTI
- 제시 수익률 : 연 7.4%
- 조기상환조건 : 3개월(90 %, 최초 기준가격 대비)
- 낙인배리어 : 60% (최초 기준가격 대비)
- 발행일 : '15.7월
- 만기 : 6개월

- '16.1월 브렌트유 가격(34.23달러/배럴)이 최초기준가격(58.73달러/배럴)의 58%에 해당되어 낙인배리어에 도달하였고,
- '16.1월 만기시 브렌트유의 최초기준가격 대비 만기가격(33.55달러/배럴) 하락률($\triangle 42.9\% = (58.73 - 33.55)/58.73$)에 따라 1,287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음